

金正日體制的 支配理念

— ‘우리 식 사회주의’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중심으로 —

全 相 仁*

◁ 目 次 ▷

- | | |
|---------------------------------|-----------------------------------|
| I. 서 론 | 1.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 |
| II. 북한 민족주의의 역사적 연원 | 2. ‘민족대단결’원칙과 민족문화
유산 복원사업 |
| 1. 북한 사회주의혁명의 민족주의
적 토착화 | IV. 결론 : 김정일체제하 지배이념으
로서의 민족주의 |
| 2.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 내면화 | |
| III. 사회주의 이념의 퇴조와 민족주
의의 전면화 | |

I. 서 론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의한 세계체계의 대변혁은 1970년대 이후 경제적 침체상태를 지속한 북한체제의 입장에서 볼 때 雪上加霜이었다. 최근 몇년 동안 북한은 아마도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시련에 처했음에 틀림없다. 위기 국면을 극복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대외적으로

*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는 핵개발 카드를 사용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최고 권력의 부자세습을 감행했다. 1994년 가을 현재 북한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간의 방황과 위기로 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사망 이후 북한에는 김정일에 의한 권력승계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핵문제를 ‘해결’한 북·미간의 제네바협상도 결과적으로는 탈냉전시대에 북한의 존재 근거를 인정해 주는 꼴이 되었다.

국제사회로부터 체제유지의 보장을 얻은 가운데 북한은 김정일체제하에서 제2기의 역사를 출범시키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면서 자신의 정통성을 공고화하는 일이며, 둘째는 시급한 민생문제의 해결과 경제발전을 위해 대외적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정치적 지배이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맑스·레닌주의가 세계사적으로 퇴조하고 김일성마저 사라진 마당에 그동안 북한을 이념적으로 지탱해 왔던 주체사상이 새로운 변용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개방정책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와의 관계개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북한 사회주의의 내용적 본질을 재정비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와 이론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사회주의 체제는 모두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기본단위를 계급이나 세계가 아닌 민족범주에서 발견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북한은 정권수립 과정에서 민족범주를 사회주의혁명의 수단적 도구로 설정하고 민족주의에 필적하는 정치적 수사를 구사하면서 사회주의혁명의 토착화를 모색했다. 그리고 195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제시하면서 계급적 관점과 민족적 입장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개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융합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민족적 동기를 전면에 부각시켜 왔다. 이 시기는 김정일에 의한 권력승계의 공고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었으며, 실지로 민족주의의 전면적 제기에는 김정일 자신의 노력이 지대했다. 그리하여 김일성과 김일성의 발언속에는 사회주의의 시련을 민족주의의 강조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자주 나타났고, 심지어 계급을 민족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여 민족의 이익을 계급의 이해에 선행시키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 지배이념의 화두가 ‘우리 식 사회주의’나 ‘조선민족제일주의,’ ‘민족대단결’과 ‘민족문화의 발전·계승’ 등으로 대표되는 배경도 바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간의 이념적 결속을 지향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김정일체제하에서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김정일체제하 북한의 지배이념을 민족주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북한 민족주의의 역사적 연원을 다룰 것인 바, 제1절에서는 사회주의 정권수립 과정에서 부터 한국전쟁 까지 북한 사회주의혁명의 민족주의적 토착화 과정을, 제2절은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주체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 입각한 북한 지배이념의 민족주의적 내면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III장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과정에서 김일성, 특히 김정일에 의한 민족주의적 동기의 강화 내용을 설명한다. 제1절에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 및 ‘우리 식 사회주의’ 이론의 등장 과정을, 그리고 제2절에서는 ‘민족대단결’ 원칙과 민족문화 유산 복원사업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제IV장은 결론으로서 북한이 지배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강화할 수 밖에 없는 배경과 그것이 향후 김정일 지배체제하에서 어떻게 계승 확대될 것인가를 고찰한다.

II. 북한 민족주의의 역사적 연원

1. 북한 사회주의혁명의 민족주의적 토착화

사회주의정권 수립 초기 북한은 이념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세계혁명을 기대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일제 식민지 유산의 척결과 한반도 통일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으면서 민족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형식의 완성을 추구했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나타난 민족주의적 성격은 물론 당대의 사회주의 건설이 즉흥적으로 제기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조 멸망을 전후하여 생성되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그 역량이 축적된 저항적 민족주의 운동이 해방공간에서 표출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당시 제3세계 일부 신생독립국가에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와의 단절을 통해 반제국주의 노선을 취하고 자주적 발전노선을 정립하고자 하던 시대적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 김일성이 민족주의를 공언했던 것도 아니고 그 자신 그럴만한 처지에 있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소련의 북한 점령이라는 외생적 변수와 함께 사회주의 혁명의 大義가 민족주의라는 언술을 원칙적으로 금기시켰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김일성은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을 줄곧 경계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¹⁾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는 스스로를 “어떤 다른 나라를 쳐다보는 공산주의자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고 조선 민족과 조선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공산주의자”라고 설명했다.²⁾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자간의 공통분모를 발견하려고 했던 김일성은 공산주의운동에 있어서도 민족애와 애국심은 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식했다. 김일성은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가”라고 주장했다.³⁾

김일성은 일제시대를 “식민지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해방 이후 “반제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수행을 통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민족”의 긍지를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⁴⁾ 곧, “식민지노예

1) 김일성, “새 조선건설과 민족통일건설에 대하여”(각 도당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45.10.13. 「김일성저작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329~338.

2) 김일성, “해방된 조선은 어느 길로 나갈 것인가”(신의주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45.11.27. 뒷책, pp.449~458.

3) 김일성, “민족운동가들과 한 담화,” 1945.11.5. 「김일성저작집 1」, pp.388~393.

근성과 낡은 봉건적 관념”의 철저한 숙청, 그리고 “자주적인 립장”의 건지에 의한 “완전한 민족적독립”의 추구를 통해 “조국의 튼성한 발전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⁵⁾ 이를 위하여 그는 각 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이라는 슬로건을 애용했다. 다시 말해 “전민족적리익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이에 복종시키는 원칙”하에서 “오직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온 겨레가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과 지식의 유무를 가리지말고 하나로 굳게 뭉쳐 건국사업에 떨쳐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덧붙여 김일성은 “민족산업” 혹은 “민족경제”의 건설과 “민족군대”의 양성, 그리고 “민족문화”의 발전을 자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⁶⁾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해방 직후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 보다는 민족국가 건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 처럼 보이게 한다. 아니면 최소한 북한이 일국 사회주의혁명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선행시켰던 것만은 분명하다. 김일성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적 노선은 상호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공생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며,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이익은 개별 국가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이해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때 가장 잘 실현되는 것이었다. 그는 “진정한 애국주의는 프로

4)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군사정기간부들앞에서 한 연설), 1945.8.20. 「김일성저작집 1」, pp.250~268.

5) 김일성, “새조선 건설과 공산주의자들의 당면과업”(지방에 파견되는 정치공작원들과 한 담화), 1945.9.20. 「김일성저작집 1」, pp.269~279; 김일성,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평양로농정치학교 학생들앞에서 한 강의), 1945.10.3. 「김일성저작집 1」, pp.280~303.

6) 김일성,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창립대회에서 한 보고), 1945.10.10. 「김일성저작집 1」, pp.304~328; 김일성,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완전자주독립을 위하여”(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220~226; 김일성, “민주주의조선립시정부를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북조선민전산하 정당, 사회단체 열성자대회에서 한 보고), 「김일성저작집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304~320; 김일성, “조국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닦기 위하여”(홍남지구인민공장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165~170; 김일성,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묘향산 박물관 및 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281~286 등을 볼 것.

레타리아국제주의와 분리될수 없으며 부르조아민족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상반된다는것을 확신”했다.⁷⁾

1945년 8월, 북한의 최고실력자로 부상한 김일성은 3대 당면 과업으로 建黨과 建國, 및 建軍을 제시했다.⁸⁾ 이 가운데 “중앙주권기관” 수립을 목표로 한 건국사업은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족하는 것이 그 시발이었다. 그것은 해방 정국에서 출현했던 북한 단독정권의 원형이었고 1948년 9월에 정식으로 수립된 근대적 사회주의 민족국가,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석이었다. 김일성에 의하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어떤 외국의 정치적간섭에 의하여 외국으로 부터 수입된 정권형태인것이 아니라 조선인민의 창의를 의하여 우리 민족 자체가 창설한 것”으로, 그것은 “해방된 조선민족이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인식되었다.⁹⁾

그러나 김일성이 주장하는 건국과정에서의 자주성은 비판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그동안 김일성의 권력장악 과정을 설명하는데는 그동안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기도했던 소련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과¹⁰⁾ 김일성 스스로의 노력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으나,¹¹⁾ 북한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보여진 소련의 영향력이 “핵심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였음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¹²⁾ 사실상 김일성은 소련에 대해서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을 성의껏 도와주는 이웃나라”로 인식했다. 또한 그는 “쏘련과의 친선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 의로운 벗에게 너무 수고를 끼치지 말고 우리자체의 힘으로 하루속히 새 정권을 세워야”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¹³⁾ 이

7) 김일성,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조선인민의 투쟁,” 1952.4.25. 「김일성저작집 7」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170~182.

8)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앞글.

9) 김일성, “8 15 해방 2주년 평양시 기념대회에서 한 보고,” 1947.8.14. 「김일성저작집 3」, pp.369~391.

10) Dae-Sook Suh, *Kim Il Sung : The North Korean Leader* ; Robert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참조.

11)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 & II* 참조.

12) Hak Soon Paik,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 Vol. I & II, PhD Dissertation, Univ. of Pennsylvania, 1993 불 것.

13) 김일성, “새 민주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의 과업”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에서 배운 환영연에서 한 연설), 1945.10.18. 「김일성저작집 1」, pp.361~364.

는 김일성에 의한 건국 노력이 의지면에서는 자주적이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련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발족을 기점으로 하여 북한은 1947년 초까지 대대적인 ‘위로 부터의 사회혁명’을 추진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토지개혁이었다. 1946년 3월 5일에 발표된 「북조선토지에 관한 법령」은¹⁴⁾ 기존 봉건적 사회질서의 물적 토대를 와해시키는 신호탄이었다. 이어서 같은 해 6월 24일에는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이, 7월 30일에는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그리고 8월 10일에는 「산업, 교통운수, 채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이 각각 공포되었다.¹⁵⁾ 이로써 북한은 기존의 전통적 사회관계를 해체하여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법적·제도적 기초를 마련했다. 이어서 1948년 9월 8일에 발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은 비록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신분과 계급 및 성별의 차이를 불문하는 인민주권 대표원리를 완성시켰다.

반제반봉건사회혁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하여 김일성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주체세력임을 자임했다. 그에 의하면 민족통일의 문제는 남한을 ‘미제국주의’로 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미제국주의 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며 그것을 철저히 분쇄하기 위해서는 북조선에 창설된 민주기지를 결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⁶⁾ 1950년 초에 김일성이 “국토의 안정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강조할 무렵,¹⁷⁾ 북한의 대남 전쟁준비는 사실상 끝났다. 그러나 김일성의 “조국해방전쟁”이 준비과정에서 부터 전후 복구에 이르기 까지 소련이나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형제국”들의 강력한 지원에 의존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는 전쟁의 시작에 앞서 스탈린과 모택동의 승인과 지원을 약속받았고,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황이 불리해진 상황에서는

14) 「김일성저작집 2」, pp.101~104.

15) 「김일성저작집 2」, pp.273~279, 327~328, 338~339.

16) 김일성,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모든힘을 민주기지의 강화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결론), 1948.3.29. 「김일성저작집 4」, pp.245~260.

17) 김일성, “1950년을 맞이하여 공화국 전체인민들에게 보낸 신년사,” 1950.1.1.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352~357.

중국 인민지원군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回生했던 것이다. 또한 전쟁이 끝난 뒤 복구과정에 참여하고 있던 사회주의 형제국들의 역할을 김일성은 “전 세계로동자들의 국제주의적의무”라고 말했다.¹⁸⁾

1945년의 해방으로 부터 1950-53년의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북한 사회주의혁명의 민족주의적 토착화는 제국주의의 배격을 통한 대외적 민족자결권의 확립과 강력한 국가 건설에 의한 대내적 주권의 확보, 그리고 半봉건적 사회구조의 해체에 의한 민족경제의 형성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민족주의는 민주적 차원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은 사회주의혁명 과정에서 국가가 대내적 정통성의 확립을 위해 일방적으로 실시한 정치적 동원의 양태를 띠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민족주의가 추구한 민족통합의 원칙도 제한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 우선 민족범주의 설정에 있어서 김일성은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 결집을 호소하면서 실제로는 “무원칙한 <대동단결>”을 지향하면서¹⁹⁾ 농민과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적 편향성을 갖고 있었다.

김일성은 또한 해방 전까지 한국을 지배하던 일본과, 해방 이후 남한의 정권수립을 후견하던 미국을 비판하면서 반제국주의적 배타성을 내면화했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제3세계의 저항적 민족주의 속성을 내재한 결과, 민족자주권의 명분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함으로써 민족주의의 대외개방적 성격을 간과했다. 동시에 북한은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에 대해서는 자주적 원칙을 견지하지 못했다. 북한은 또한 민족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한을 征服의 대상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비판되어야 한다. 북한은 민족통일을 위해 사회주의 형제국들의 지원으로 남한의 동족을, 그것도 무력으로 병합하고자 기도함으로써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

18) 김일성 “5·1절경축연회에서 한 연설,” 1954.5.1. 「김일성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382-384.

19)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김일성,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 1946.3.7. 「김일성저작집 2」, pp.113~114. 이는 당시 이승만이 제시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식의 대동단결 원칙과 대조적이다.

2.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 내면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북한 사회주의정권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첫째로 한국전쟁에서의 ‘패전’은 김일성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었다. 둘째로 전쟁으로 인하여 북한전역은 초토화되었고, 그 결과 인적 물적 자원이 대거 고갈되었다. 셋째, 북한은 ‘戰犯’ 國家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었다. 넷째,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에 나타난 사회주의권의 내부적 동요도 북한정권에 대한 유해한 환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국면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여 개인적 권력강화와 사회주의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1950년대에 김일성은 무엇보다도 “사상사업에서 주체확립을 위한 투쟁”에 주력했다.²⁰⁾ 1955년 말, 김일성은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의 퇴치를 통한 주체의 확립을 역설했으며,²¹⁾ 이어서 1960년대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결정적투쟁이 전개”되었다.²²⁾ 1965년 4월에 김일성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주장함으로써 주체이론에 대한 체계화를 처음 시도했다.²³⁾ 그리고 1967년 5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는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²⁴⁾ 또한 같은 해 7월 6일 김일성이 “전당이 하나의 사상,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이에 기초하여 단결”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주체사상”이라는 말은 최초로 공식화되기에 이르렀다.²⁵⁾

20) 「조선로동당력사」, p.392.

21)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55. 12.28. 「김일성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467~495.

22) 「조선로동당력사」, p.456.

23)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인도네시아의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1965.4.14. 「김일성저작집 1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278~329.

24) 「조선로동당력사」, p.432.

주체사상이 1950-60년대 북한 사회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주체사상을 통하여 북한은 한국전쟁의 폐허로 부터 경제건설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고,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며 또한 사회주의권 동요의 여파를 차단함과 동시에 중·소분규를 틈타 대외적 자주성을 나름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북한은 1970년에 제5차 당대회를 열고 1950~60년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²⁶⁾ 이때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나라의 현실에 그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²⁷⁾ 이어서 1972년에 12월에 공포한 「사회주의헌법」 역시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기했다.

이 무렵 주체사상은 질적으로도 변모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의 이른바 ‘4개 노선’ 중심의 ‘지도적 원칙’으로 부터 주체사상은 보다 독자적이고 보다 심오한 “사람중심의 철학적 원리”로 격상하게 된 것이다. 특히 김정일의 부상은 주체사상의 양적 확산과 질적 전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주도하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앞장섰으며,²⁸⁾ 1974년 4월 14일에 조선로동당 제5기 제9차 당중앙위원회는 김정일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전원회의 결의 형식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주체사상의 탈맑스-레닌주의화 혹은 김일성주의화는 1980년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기존의 입장이 포기됨으로써 더욱 뚜렷해졌다. 제6차 당대회는 당규약 개정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25) 김일성, “간부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144~185.

26) 「조선로동당력사」, p.458.

2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25」, pp.232~256.

28) 「조선로동당력사」, pp.474~475.

지도된다”고 선언했고, 이와 더불어 동대회는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 시위”하기에 이르렀다.²⁹⁾ 그 이후 1980년대의 주체사상은 김정일의 손에 의해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³⁰⁾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은 김일성의 70회 생일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고전적론문”을 발표했다.³¹⁾ 또한 1985년에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전 10권이 출간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주체사상은 철학적 원리와 역사이론, 그리고 정책노선과 지침 등을 하나의 체계속에 포함하는 독자적인 사상체계의 형태로 완결되었다.

주체사상이 갖고 있는 민족주의적 요소는 크게 보아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소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개념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주의가 북한의 사회주의적 발전에 용해될 수 있는 이념적 전환의 기초를 마련하면서 민족주의를 주체에 관한 이론의 하위개념으로 내면화했다. 주체사상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라는 레닌식 개념을 도입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 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하여³²⁾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계급주의적 세계관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민족주의는 “대내적으로 근로대중의 계급적이익을 떠난 ‘전민족적리익’을 내세움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자기의 진정한 계급적리익과 민족적리익을 자각할 수 없게”함으로써 “결국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고 로동계급이 자기의 근본리익을 위하여 투쟁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비판되었다.³³⁾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 나타난 계급성은 주체사상이 추구하는 “혁명적군

29) 「조선로동당력사」, p.531.

30) 「조선로동당력사」, p.543.

31)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8~81.

32)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600~603.

33) 「정치사전」, pp.430~431; 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253.

중관점”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군중이라 함은 “기본군중 즉 노동자, 농민들” 및 그들의 “동맹자들”을 뜻한다. 따라서 “혁명적군중관점”은 주체사상의 계급론적 기반을 명백히 반영하면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이르게 하는 이론적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개념이 주체사상의 계급론적 및 국제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민족을 자주와 발전의 핵심 단위로 중요시했다. 사실상 주체사상은 계급과 민족을 동렬에 놓고 양자를 공히 ‘사회적 집단’이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계급은 사회적 구조에 있어서 기본요소이며, 민족은 사회생활의 기본단위라는 입장이다.³⁴⁾ 북한은 오랫동안 민족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언어, 지역, 경제생활, 문화와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는 스탈린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러나 1973년 부터 민족의 구성요소에 “혈통”을 새롭게 추가한 사실은³⁵⁾ 나름대로 고유하고도 구체적인 민족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사회주의 혁명과 발전의 민족자주적 원칙이다. 북한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가운데 핵심은 자주성의 원칙이다. 1955년에 사상에서의 주체가 처음 제기될 무렵 김일성은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은 우리자체의 힘”이라고 말했으며³⁶⁾ 1965년에 행한 연설에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가 북한 사회주의 혁명의 목표라고 선언했다.³⁷⁾

여기서 자주는 정치, 외교 전반에서 완전한 민족자결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은 기본적으로 자력갱생 원칙에 의한 민족경제건설을 뜻한다.

34)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58.

35) 「정치사전」, p.423.

36)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62.10.23. 「김일성저작집 16」(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441~495.

37)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1967.12.16. 「김일성저작집 21」(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481-548.

또한 자위는 국방에서 구현되는 자주와 자립정신이다. 결국 북한의 이른바 “4개노선”은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으로서 1960년대 이후 북한의 민족적 사회주의 발전의 길잡이가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4개노선”을 발판으로 하여 민족적 자주와 남북통일, 그리고 사회 경제발전 문제에 접근했다. 어떤 의미에서 주체사상이 구현하고자 하는 “4개노선” 정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민족적 자주성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집착하는 자주성은 사실상 단순한 지도적 원칙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적 원리로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일 뿐만 아니라 사회역사 원리로서 역사의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은 민족의 생명을 자주성로 인식하는 사상으로써 강력한 배타적 내지 저항적 민족주의의 속성을 떨 수 밖에 없었다. 민족통일의 문제 역시 북한의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주장한 것 처럼 “조선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조선민족의 내부분제”라고 인식했다.³⁸⁾ 북한은 통일문제를 북한 자체의 자주권 확립과 동일한 차원의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 요소로 지적할 수 있는 또 한가지는 북한의 지배구조가 한국의 전통적 권위주의를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형식적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이 설정하는 권력관계는 한국 전통사회의 지배양식과 흡사하다. 이는 주체사상이 유교를 근간으로 한 한국 전래사상에 상당한 맥을 잇고 있다는 것, 소위 “조선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 “수령론”과 “후계자론”을 중심으로 세습적 왕조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정치생명체론”에 의거하여 가족을 메타포로 한 유기체적 지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과도기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거쳐 궁극적인 목표는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전통적 권위주의체제에 더욱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주체사상에서 권력관계의 전통적 권위주의가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대목은 수령론과 후계자론이다. 1969년에는 수령이 혁명과 건설의 향도인

38)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당·정권기관·근로단체들을 지도하는 최고 뇌수라는 혁명적 수령관이 정리되었으며,³⁹⁾ 후계자론에 의하면 수령에 대한 충성과 그 후계자에 대한 충성은 동일한 것이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혁명의 최고지도자”인 것이다. 수령론은 후계자론과 함께 ‘왕권신수설’에 입각하여 사실상 한국 전통의 전제군주제를 북한에서 부활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와 김정일이 제시한 ‘사회정치생명체론’은 유교원리에 입각한 전통적 사회질서 형성을 더욱 더 뚜렷이 복원시키고 있다.⁴⁰⁾ 그는 수령과 당, 그리고 인민대중의 상호관계는 혼연일체로서 “유기적이며 전일적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이어서 1986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 앞에서 한 담화에서 (소위 「7·15논문」) ‘사회정치생명체론’을 북한의 새로운 통치모형으로 구체화시켰다.⁴¹⁾ 이것은 내용적으로 볼 때 유교적 가족국가관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곧, 사회정치생명체론은 정치적 생명을 매개로 하여 북한사회 전체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가족주의적 통치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유교적 전통과 크게 공명하고 있다.⁴²⁾

Ⅲ. 사회주의 이념의 퇴조와 민족주의의 전면화

1.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시련에 직면했

39) 이종석, “조선로동당의 지도이념과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pp.104~105.

40)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8~81.

41)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144~169.

42) 스즈키 마사유키, “북한의 사회정치생명체론,”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 (서울: 동화연구소, 1991), p.244.

다. 우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내부적 한계와 잇따른 경제적 失政에 따라 북한경제는 1970년대 이후부터 누적된 저성장과 침체의 연장선에서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한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의 변화와 거기서 연유한 사회주의권의 세계적 종말 분위기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켰다. 이와 덧붙여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적 완성을 목전에 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대북한 압력도 가중되었으며, 남한내 일각에서 흡수통일론 혹은 흡수통일 불가피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지도부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 노선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며, 대외정세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공세”를 심각히 우려했다.

가중된 외우내환속에서 북한은 국가의 존속과 김정일 세습체제의 공고화에 최대의 역점을 두면서 주체사상의 틀안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이론을 개발하여 체제의 수호 및 회생을 시도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논리는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매우 방어적인 측면에서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⁴³⁾ 다시 말해 1989년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1991년 소연방의 해체는 북한 사회주의를 새롭게 채색할 필요성을 제고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북한의 민족주의는 그 이전의 내면화 상태로 부터 전면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1985년은 민족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반전을 기록한 해였다. 이때 부터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교시를 인용하여 민족과 민족주의를 해설하는 새로운 논문들이 대거 출판되었다. 먼저 이들은 “민족의 징표”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계급론적 입장을 완화하는 대신, 혈연과 언어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예컨대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으로 결합하는 공통성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이라고 보았다.⁴⁴⁾ 또한 “자

43) 김성철,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70.

44)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사회과학」 (1986년 2월호), p.6 ; ‘정론: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 (1985년 10월호), p.14 ; 최길산, “우리당이 밝힌 민족문제에 관한 리론” 「남조선문제」

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인민대중의 운명도 민족 및 국가적범위에서 개척되어야한다”는 입장에서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는 한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못박았다.⁴⁵⁾

이와 같이 민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다음 북한은 민족적 자부심과 우월감을 과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은 1986년 7월 15일, “우리민족제일주의” 혹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장했다.⁴⁶⁾ 그는 “내가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것은 자기민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것입니다. 자기민족을 깔보고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당과 인민들에게 충실할수 없으며 자기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수 없습니다....우리는 언제나 자기나라의 구체적현실에서 출발 하여야합니다....우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해나가야 하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김정일은 그러나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 하는 것은 결코 다른 민족을 깔보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 내세우라는것이 아닙니다”하고 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배타적 성격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로 될수는 없다”고 말하여 민족주의라는 용어의 직접적인 사용은 여전히 기피했다. 그는 애국주의라는 말을 선호했는 바, “공산주의자들은 참다운 애국주의자인 동시에 참다운 국제주의자”라고 말했던 것이다. 결국 김정일에 의하면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되던 1989년 말에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당 중앙위원회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재차 확인했다.⁴⁷⁾ 그는 “조선민족

(1986년 2월호) 참조.

45)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이해.”

46)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47)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 앞에서

제일주의정신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정의하고 북한을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라고 자찬했다. 김정일은 세계에서 북한이 "사회주의를 으뜸가게 세워놓았다는것은 참으로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 아닐수 없"다고 자부하고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자체의 힘으로, 자기 식으로 건설한것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 남다른 애착을 가집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오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후 이 나라들의 경제가 더욱 심한 진통과 위기를 겪고 있는것은 제발로 걸어나가는 자립적경제건설로선을 견지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도입한 후과"라고 평가했다.⁴⁸⁾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그러나 주체사상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원천력에서 근본핵을 이루는것은 가장 위대한 수령과 지도자를 모신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기 때문이다.⁴⁹⁾ 다시 말해 "우리 민족이 자기 민족을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자랑할수 있는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⁵⁰⁾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대한 한 방송해설은 "민족의 위대성이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모시고 있는 수령의 위대성과 당의 영도의 현명성, 민족이 지닌 지도사상의 위대성과 사회제도의 우월성에 의해 규정되며 여기서도 수령의 위대성이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¹⁾ 그 까닭은 "수령은 민족사회 집단의 최고 뇌수이며 단결과 영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식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이미 김정일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논할 때 등장한 것이나, 김정일이 사회주의 체제의 대변혁을 목격한

한 연설), 1989.12.28.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일성동지의 문헌집」, pp.248~273.

48) 김재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우월성을 물질적으로 담보하는 정당한 로선," 「경제연구」(1992년 3월호), pp.5~7.

49)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평양: 평양출판사, 1989), p.138.

50) 김영진,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결정적담보," 「철학연구」(1992년 1월호), pp.19~23.

51) 「평양방송」, 1994.2.1.

다음인 1991년 5월 5일에 발표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이후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⁵²⁾ 이 논문에서 그는 계급을 초월하고 세계변화과는 무관하게, 민족이 사회주의 체제의 가장 으뜸가는 단위임을 분명히 했다. 김정일은 “나라와 민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공동체”라고 말하고,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사회적집단의 리익, 인민대중의 리익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실현되며 나갑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갈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인류력사상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형성과 발양을 위한 사회적기초로, 그 요인”으로 되는 것이다.⁵³⁾

몇달 뒤 김일성은 김정일의 주장으로 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김일성은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온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며 사회생활 단위”라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개별적계급계층의 사상과 리념을 옹호하고 리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것은 민족공동의 위업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⁵⁴⁾ 보다 획기적인 부분은 “계급과 계층은 민족의 한 부분이며 어떤 계급과 계층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떠나서는 자기의 리익을 실현할수 없”다는 논리하에서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을수 있으며, 민족의 리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리익도 보장될수 있”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이로서 민족은 단순히 혁명과 발전의 기본 단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급에 선행하는 이해관계의 주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더욱이 김일성은 같은 맥락에서 “부르조아민족주의”와 “진정한 민족주의”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는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52)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343.

53) 장석소, “조선민족제일주의형성의 중요 요인,” 「철학연구」 (1993년 2월호), pp.12~16.

54)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측대표 성원들과 한 담화) 1991.8.1. 「로동신문」, 1991.8.5.

진보적인 사상으로서는 발생”하였으나, “그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조아지가 반동적지배계급으로 되면서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상적도구가 되었”다고 말하고, 이런 의미에서 “부르조아민족주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 대치되는 사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성은 “놀고 먹는 자들이” 아닌 한, “정신로동을 하든 육체로동을 하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참다운 민족주의자가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일민족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라고 말하고, “참다운 애국자”는 또한 “세계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국제주의자”라고 덧붙였다. 김일성은 “이런 의미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까지 말했다.

이처럼 계급성과 국제주의를 초월한 민족주의가 전면에 부상되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북한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의 대외정세적 위기를 극복하는 이론적 지주가 되었다. 1991년 5월,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가 선언된 것에 이어서, 1992년 4월에 있었던 헌법개정에서 북한은 주체사상이 맑스 레닌주의를 계승하고 있다는 구절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강조했다. 김일성은 또한 “사회주의는 곧 우리인민의 생활이며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맑스 레닌의 것도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의 것도 아닌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결국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일치시키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제시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재확인했던 것이다.

2. ‘민족대단결’ 원칙과 민족문화유산 복원사업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 논리에 의한 북한의 민족적 동기 강조는 무엇보다도 “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원칙을 제시하는데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문제에 관련하여 민족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72년 남북한 7·4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의 하나로 “자주” 및 “평화”와 함

께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며, 7·4공동성명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난 다음 1973년 6월 23일에 김일성은 “고려연방제”를 제의하면서 남북 각계각층 인민과 각 정당 사회 단체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을 제안하기도 했다. 남북대화가 중단된 이후 1979년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무조건적 당국대화”를 제의했을 때도 북한은 다시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명의로 예의 “전민족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1980년에 개최된 제6차 조선로동당대회에서 북한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의 3대 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재확인하였다.

물론 “대민족회의” 개최에 관한 북한의 제의는 남한에 의해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민족대단결”도 통일 3대 원칙의 하나에 불과하여 민족적 동기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였다. 그러나 1991년 김일성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을 상대로 한 담화에서 부터 “민족대단결”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김일성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또한 본질적내용”을 이룬다고 설명하면서,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는 것”이라고 부언했다.⁵⁵⁾ 이로써 민족대단결은 자주와 평화에 선행하는 통일원칙이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3년 4월 7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는 김일성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채택하였다.⁵⁶⁾ 정무원 총리 姜成山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대단결강령을 채택할데 대하여”라는 의제와 함께 남한 정부에 대한 “4개 요구사항”을 덧붙였다. 그 이후 북한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대남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는 역대 “대민족회의”에서 보다 훨씬 강도 높은 민족주의적 修辭가 담겨져 있다. 그리

55)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로동신문」 1991.8.5.

56) 「로동신문」 1993.4.8.

하여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 식 사회주의” 논리의 연장선에서 현단계 북한의 정세관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그 전문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인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통자이건 유신통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을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을 돈을 내어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통성변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하자고 호소했다. 결국 전민족대단결의 의의는 민족 전체가 지역과 계급, 정견과 신앙을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의 통일과 통일조국의 변영을 위해 ‘무조건 뭉치자’는데서 찾아지고 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제1항은 민족대단결의 목표를 밝히고 있다.
 57) 전민족대단결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구성원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하는 연방제이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제2항은 민족대단결의 이념적 기초에 관한 것이다.⁵⁸⁾

그것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전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고자 하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은 사실상 민족주의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제3항의 내용이다.⁵⁹⁾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57) 김창운, “민족단합의 대현장(1), 자주적인 통일국가창립은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 「로동신문」 1993.4.24.

58) 리대영, “민족단합의 대현장(2), 전민족대단결의 리념적기초” 「로동신문」 1993.4.26.

59) 조해성, “민족단합의 대현장(3),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로동신문」 1993.4.28.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것이며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 할 뿐 아니라 “지역적, 계급적 리익에 앞서 전민족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제4항 부터 제10항까지는 민족대단결의 方途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제4항은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할 것을,⁶⁰⁾ 제5항은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할 것을,⁶¹⁾ 제6항은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함을,⁶²⁾ 제7항은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성을,⁶³⁾ 제8항은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할 것을,⁶⁴⁾ 그리고 제9항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할 것을,⁶⁵⁾ 끝으로 제10항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할 것을⁶⁶⁾ 각각 주장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발표 이후 북한은 민족주의적 정서의 제고

60) 리현도, “민족단합의 대헌장(4), 동족끼리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해야 한다” 「로동신문」 1993.4.30. 참조.

61) 엄일규, “민족단합의 대헌장(5), 민족의 화합과 신뢰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 「로동신문」 1993.5.2. 참조.

62) 리형진, “민족단합의 대헌장(6), 전민족을 애국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기치,” 「로동신문」 1993.5.4. 참조.

63) 류 광, “민족단합의 대헌장(7),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민족단합의 기치,” 「로동신문」 1993.5.6. 참조.

64) 송철영, “민족단합의 대헌장(8),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기 위한 강령적지침,” 「로동신문」 1993.5.8. 참조.

65) 호영길, “민족단합의 대헌장(9), 민족단합을 위한 획기적인 방도,” 「로동신문」 1993.5.10. 참조.

66) 김창운, “민족단합의 대헌장(10), 전민족을 폭넓은 단합의 길로 떠미는 추동력,” 「로동신문」 1993.5.12. 참조.

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를 도모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민족적 동기를 전례없이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이 나온 직후인 1993년 4월 10일에 평양시 군중지지대회를 개최한 것에 이어 각 시 도별 군중지지대회를 열었으며, 당 정 고위 인물과 각종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이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켰다. 또한 4월 12일에는 이 강령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문서로 배포하였고, 4월 24일에는 楊亨燮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로 남한의 정부 당국자, 정당 대표자, 재야단체 등에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실천을 위한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송한 바 있다.

조국통일과 관련하여 민족대단결 원칙을 전례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북한은 민족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당시 사회주의혁명의 토착화를 위해 민족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했다. 그러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추진과 다른 사회주의국가와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연대성을 위해 구시대와의 단절은 사실상 불가피했고 따라서 민족문화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처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민족전통과 민족문화가 다소 강조되기는 했으나, 김일성 유일지배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개인우상화가 고조되면서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은 다시 상대적으로 둔화되었다.⁶⁷⁾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기치 아래 민족문화의 복원사업에 열중하고 있다. 보기로 1992년 5월, 김일성은 황해도 개풍군에 있는 고려태조 왕건의 무덤을 방문하고 “왕건이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를 세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왕릉의 증축공사를 지시했다. 김정일 역시 이 왕건왕릉의 改建에 깊이 간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1994년 1월 31일, 왕건의 생일 1117돌을 기념하여 완성되었다.⁶⁸⁾ 왕건왕릉의 개건식에서 개성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림수만은

67) 이종석, “단군왕릉 발굴과 북한의 민족주의,” 「통일한국」(1994년 4월호), pp.68~71.

68) 「로동신문」 1994.2.1.

“고려태조 왕건왕릉이 개건된것은 단군이 고조선을 세워 우리 민족이 국가 시대, 문명시대에 들어선 이후 동방의 강성대국 고구려와 발해를 이어 첫 통일국가인 고려에 이르는 민족사의 전통을 후손만대에 물려줄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역사적 문화재보를 마련한것”이라고 말했다.

림수만의 개건사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북한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들 가운데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고려 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왕건왕릉 개건에 앞서 북한은 1993년 5월에 고구려 시조 동명왕릉의 증축공사도 완료하였으며,⁶⁹⁾ 특히 고구려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강하였던 시기”로서, “근 1,000년을 헤아리는 자기의 역사에서 수십차례의 외세의 침공을 당했으나 그때마다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싸움으로써 민족적자주권을 영예롭게 고수”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었다.⁷⁰⁾ 또한 1992년 5월에는 발해유적 발굴조사사업을 연해주에서 대대적으로 벌인 바도 있다.

북한이 전통문화의 유산을 복원 발전시키는 노력을 경주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 일은 고조선의 단군왕릉 발견과 檀君實在說의 주장이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유구성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단군신화를 말해왔지만 단군을 어디까지나 신화속의 인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단군조선과 단군은 봉건사가나 민족주의사가에 의해 실재한 고대국가, 실재한 인물처럼 왜곡 과장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⁷¹⁾ 그런데 북한은 1993년 9월 28일 “단군의 유골과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발표하고 이어 개천절을 하루 앞둔 10월 2일, 사회과학원은 “단군릉 발굴보고”를 발표했다. 그리고 「로동신문」은 사실을 통해 단군 유골 및 유물의 발견은 평양이 “조선민족의 발상지이며 우리 민족의 국가형성과 발전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깊이 간직하고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⁷²⁾ 또한 1993년 10

69) 「로동신문」 1993.5.30.

70) 최창빈, “고구려는 대외관계에서 시종일관 자주권을 고수한 나라,” 「역사과학」 (1993년 1월호), pp.40~46.

7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역사사전 1」,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1), pp.472-473.

월 12-13일, 평양인민대학습당에서는 단군릉 발굴결과에 대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북한 사회과학원의 단군릉 발굴 보고문에 따르면,⁷²⁾ “중전의 신화적, 전설적 인물로 간주되어온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실지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방의 선진문명국이었다는것이 명백해졌다”고 한다. 평양시 강동군 강동읍의 서북방 대박산 동남쪽 경사면에서 발견된 단군릉에는 단군과 단군부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86개의 뼈가 출토되었으며, 남자뼈에 대한 연대측정의 결과 지금부터 5천 11년전의 것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단군은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동방에서 처음으로 조선 곧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실로 우리 민족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을 이룩한 것으로 미화되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단군유골의 출토를 계기로 하여 “단군의 후예로서의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은 더욱더 높아”짐에 따라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물보다 진한 피의 동질성을 우선시 하면서 분단의 비극을 조선민족의 낯, 민족의 폭넓은 도량으로 끝장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자고 선동했다.

단군릉 발굴을 즈음하여 열린 북한 사회과학원의 학술대회 역시 단군실제설을 통해 고조선의 도읍지가 평양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단군의 후예로서의 단일민족이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예컨대 사회과학원의 박진욱은 단군의 유골이 발견된 의의는 “단군이 죽은 것과 따라서 그가 도읍한 것이 평양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데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 혁명의 수도 평양의 유서깊은 력사”를 자랑했다.⁷⁴⁾ 김일성대학의 현명오 역시 “과거 사회에서 왕들의 무덤을 수도 부근에 쓰는것이 대체로 하나의 관례”라고 지적하면서 “강동의 단군릉이 절대적인 단군의 무덤이라고 확정”했다.⁷⁵⁾ 그리고 사회과학원의 전영률은 “단군 및

72) 「로동신문」 사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유구한 민족사를 빛내어 나가자,” 1993.10.4.

73) 북한문제조사연구소, 「북한의 단군릉 발굴관련자료-사회과학원 보고문 및 학술논문」 (서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3).

74) 박진욱, “단군릉 발굴 정형에 대하여,” 윗책, pp.26~33.

수도 문제에서 얻은 성과”를 통해 “단군은 조선민족의 원시조이고 오늘의 조선민족은 그의 후예라는 인식”하에서 7천만 동포가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⁷⁵⁾

한편, 북한은 1993년 12월 9~11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를 열고 “민족문화 유산을 옹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 할데 대하여”라는 결의를 채택했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은 보고를 통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벌어지고 있는 우리시대의 역사적조건에서 민족문제는 인민대중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동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민족에 대한 립장은 민족유산에 대한 립장에서 중요하게 표현되며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곧 민족적자부심과 민족제일주의의 중요한 표징”이라고 주장했다.⁷⁶⁾ 그는 “계급과 계층은 민족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라고 덧붙였다.

김기남은 이어서 “남조선위정자들”이 “신라정통설을 유포시키면서 민족문화의 이질성을 억지로 날조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북과 남 사이의 판이한 대결을 이루고 있는 현 실태는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태도가 곧 애국자와 매국자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조선중심의 고대사와 고구려중심의 중세사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북한 지역에 민족사정통성의 중심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특히 단군릉 발굴을 통해 “조선사람의 기원문제, 우리 민족의 시원문제가 빛나는 해명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산수수려한 평양은 인류의 발상지로, 민족문화의 중심지로 조선민족의 성지로 온세상에 이름떨치게 되”었다고 자랑했다

그는 “민족문화 유산은 반드시 그것이 창조되어온 민족의 발전력사와

75) 현명오, “첫 문명국가인 고조선의 수도 단군의 도읍지는 바로 평양이었다,” *윗책*, pp. 68~72.

76) 전영률, “김일성의 단군 및 고조선과 관련한 교시는 역사연구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은 강력한 지침,” *윗책*, pp.17~25.

77) 허문영, 「1993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결과분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부록 2, pp.32-56.

연관시켜 보면서 그속에 있는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정확히 가려내고 주체적인 립장에서 옹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아야”하는 “사회주의민족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문화건설에서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적 패난을 다같이 배격하고 주체성의 원칙과 노동계급성의 원칙, 역사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자고 요구했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민족문화 유산을 옹게 계승 발전시키는 분야에서도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민족문화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학술상의 문제이거나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주시대의 기본 요구와 민족자주노선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비약시키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 : 김정일체제하 지배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

김일성 생전의 말기, 그리고 김정일 후계체계의 공고화기에 크게 강조되어 온 북한의 민족주의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에 의한 권력승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취한 가장 가시적인 업적 가운데 하나가 최근 단군릉의 완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족주의의 부각 역시 김일성으로 부터 김정일로 승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김정일치하에서 민족주의의 전면화는 더욱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최근 북한이 전면화하고 있는 민족주의 혹은 민족적 동기의 강화 배경 및 의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선 그것은 북한이 현재 처하고 있는 체제적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가중되는 경제적 침체와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따른 국제적 고립의 심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방어적 입장에서 주체사상의 새로운 이론적 변신을 모색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은 현존사회주의체제의 범세계적 붕괴현상에 대응하고,

“전민족대단결” 원칙을 통해 남한에 의한 소위 ‘흡수통일론’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우외환속에서 김정일 세습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서도 북한은 민족문화의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작금에 민족적 동기를 강조하는데는 보다 시급히 당면한 현안들에 대처하자는 전술적 목적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의혹을 호도하고 그것을 민족내부의 문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경제적 失政에 따른 주민의 불만을 전통문화 계승에 따른 민족적 긍지로 무마할 필요성도 느꼈을 것이다. 아울러 북·미간 제네바 협상 타결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 경제적 개혁과 개방에 대비하여 남한 및 해외교포 자본을 도입할 목적으로 민족대단결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며, 특히 대외개방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외부사조의 침투를 민족주의적 정서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자는 고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시도하고 있는 민족주의의 전면화가 보다 점증적이고도 적극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필요도 있다. 우선 민족적 동기의 강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10년에 가까운 정도로 나름대로의 장기적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것을 현 국면의 타개를 위한 전략적이고도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점에서 1993년 4월에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1950년대 전쟁전략의 실패 이후 북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남한에 대한 패권적 혁명전략을 수정하는 대신, 남한과의 현상 유지적 경쟁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차체에 기존(혹은 현존) 사회주의와의 이론적 결별을 통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향함으로써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치이념을 적극적으로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은 그동안 주체사상을 전개하면서 그것의 탈맑스·레닌주의화를 꾸준히 진행시켜 왔던바, 민족주의를 통해 사회주의와 가장 친화력이 강한 이념적 모색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주체사상에 내재되어 있던 기존의 민족

주의 노선을 표면화, 활성화함으로써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계급축으로 부터 민족중심으로 전이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제 북한으로서는 김일성 없는 김일성주의를 지속시켜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의 강조는 주체사상의 지속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김일성 사후에도 민족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서 찾아질 수 있다. 첫째, 김정일체제의 공고화를 위하여 카리스마의 제도화가 전통적 지배의 정당성 구축을 중심으로 실현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카리스마는 혁명적이고 一回的이며 불안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카리스마의 승계는 불가피하게 제도화 혹은 일상화의 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북한의 경우 전통적 지배양식으로의 복귀는 민족주의의 틀 안에서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용이하게 하는 변수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의 정치적 정통성은 민족주의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둘째, 김정일체제하 북한은 비록 방법과 폭 및 시기의 문제를 미정으로 남기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회생을 위해 일정한 개혁과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개혁과 개방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폐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기존의 경제운용 원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형식논리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민족주의는 북한 지도부의 자기변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 산업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 처럼 경제발전을 위한 견인차로서의 민족주의를 북한이 재차 활성화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경우 북한의 민족주의가 개방형 민족주의로 연결될 소지가 엿보이기도 한다.